

국토교통부, 집중호우 대비 철도안전 총력 대응

- 18일 철도안전 비상대응 태세 점검... 국민안전·불편 최소화에 만전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7월 18일 오후 한국철도공사 철도교통관제센터(구로)에서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철도안전 비상대응 태세를 점검하였다.
- 먼저,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열차 운행장애, 시설물 피해 및 복구현황,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 등을 긴급 점검하였다.
 -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“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등에 호우 경보가 발효되었다”면서, 국민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철도운행 안전 확보에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하였다.
 - 특히, “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, 시설물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피해복구로 열차운행 안전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”을 주문하였다.
 - 또한, “호우 상황을 예의주시면서, 취약시설에 대한 예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비상대응 태세를 견고하게 유지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 - 아울러, 박 장관은 “극한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임시 복구된 시설도 있는 만큼,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”이라면서, “시설물 피해는 물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한 후 운행여부를 결정할 것”을 주문하였다.
- 이어서, 박 장관은 관제업무를 수행 중인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, “철도 운행 관제는 안전운행의 척도”라면서, “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, 장마가 끝날 때까지 열차운행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 - 한편,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, 국가철도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24시간 풍수해 비상대응 철도상황실을 운영 중이다.

2024. 7. 18.

국토교통부 대변인